

중소 4만곳 “비대면 서비스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에 400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곳 신청 신청 제한요건 제외 등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 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의 신청이 지난 10월 이후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달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평균 신청기업은 540개지만 지난 10월 5일 이후 일평균 1500개 이상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기부는 수요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 간소화를 시행한 10월 13일 이후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기업 중 법인기업은 60%, 개인

기업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원격·재택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이 바우처 이용 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 이외에도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를 추가한다.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케이(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도착지 없는 홍콩여행 선택

홍콩여행 기념품 등 제공 인천서 출발해 인천 도착

진에어가 출·도착지가 같은 국내선 관광 비행을 운영한다.

진에어는 4일 글로벌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K)과 함께 국내선 관광 비행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진 고객들을 위해 홍콩 여행을 테마로 진행한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기내식과 홍콩여행 기념품 등이 제공되며, 퀴즈쇼 등 기내 이벤트를 통해 국내선 왕복 항공권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상품은 관광 비행을 비롯해 국제선 운항 재개 시 사용할 수 있는 인천-홍콩 노

선 왕복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 클룩의 홍콩 여행 상품권이 포함된 상품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오는 14일에 운항하는 국내선 관광 비행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 광주·제주·부산·대구 상공을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약 1270km 코스다. 해당 항공편은 약 1시간 40분 비행 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하며, 탑승객들이 여객기 안에서 창 밖으로 자연 풍광을 볼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서 운항 고도를 조정해 운항된다. 탑승 인원은 코로나19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확보를 위해 총 189석 중 70%인 132명으로 제한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진공-동덕여대, 청년 일자리 창출 ‘맞손’

맞춤형 일자리·중기 인식개선 등 지난 7월 청년여성 45명 채용 연계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센터 운영 기보, 연대 공대와 창업·기술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개별 대학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섰다.

4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진공은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사업단과 ‘청년여성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 ▲우수 중소기업 현장탐방을 통한 중기 인식개선 ▲청년여성 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중



중진공, 동덕여대와 업무협약

소벤처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중진공과 동덕여대는 시범적으로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청년여성 구직자간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추진해 20개 기업과 청년 여성 45명의 채용 연계를 진행한 바 있다.

맞춤형 일자리 매칭은 중진공 기업 인력애로센터에 등록된 유망 기업과

대학의 청년여성 구직자간 비대면 취업상담을 통해 이뤄졌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국 32개 지역본부에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보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과 ‘우수인재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세대 공대는 대학 내 우수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받은 기업에 보증·투자 등의 금융지원과 컨설팅, 기술이전, 기업공개(IPO) 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통해 캠퍼스 창업기업의 성공을 지원한다. 또한, 두 기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기술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엠평크, 첫차 ‘홈서비스 전문관’ 1호 입점

업계 최초 실시간 영상 상담 도입 성능 점검장 인증으로 품질 보증 투명한 중고차 거래 문화 앞장

동화기업 계열인 엠평크는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인 ‘첫차’와 손잡고 온라인 중고차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엠평크 홈서비스는 첫차에 신설되는 ‘홈서비스 전문관’에 1호로 입점한다. 엠평크 홈서비스는 온라인 중고차 상담 및 구매 서비스다. 중고차 업계 최초로 비대면 구매 서비스에 실시간 영상 상담을 도입했다.

첫차에 입점하는 엠평크 홈서비스 대상 차량은 엠평크 직영 성능 점검장의 인증을 통해 품질이 보증되는 차량이다.

첫차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면 엠평크 홈서비스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고객은 실시간 영상 통화로 진행되는 구매 상담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즉석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엠평크

한편 엠평크는 2011년 문을 연 국내 최초 기업형 중고차 매매 단지이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제공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 및 허위 매물 원천 차단을 위한 서비스 마련 등 투명한 중고차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브자리 11월 생일파티 이벤트

이브자리가 온라인몰 오픈 1주년을 맞아 11월 한 달간 ‘생일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브자리는 ▲원데이 특가 판매 ▲구매 고객 이벤트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5일까지는 원데이 특가 행사를 진행해 차량이불, 패드, 베개와 3점 세트를 매일 한 가지씩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랜덤 베개를 한정 수량으로 100원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음료 교환권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이브자리 침구들도 증정할 예정이다.

후기를 남기면 자사몰 포인트도 선물한다. 또 이브자리몰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된 행사 게시글을 공유하면 100명을 추첨해 ‘수면자세별 맞춤 베개’를 전달하는 SNS 행사도 준비했다. /백지연 기자

강력한 모터 기술 ‘초고속 유리 믹서기’

신일전자, 부식에 강한 티타늄 칼날

신일전자는 티타늄 칼날을 장착한 ‘초고속 유리 믹서기’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60여 년의 오랜 기술력을 가진 신일의 모터 기술을 적용한 분쇄력이 특징이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한 6엽 티타늄 입체 칼날을 탑재해 내구성과 절삭력도 높다.

회전 속도는 순간작동 기능과 5단계로 세분화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블랙과 그레이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주방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신일전자 ‘초고속 유리 믹서기’ 제품 이미지.

그 밖에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중 본체와 믹서 컵이 분리되지 않도록 안전 잠금장치를 탑재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플라이강원 양양-제주노선 순항에 운행 확대

하루 왕복 3~4회로 증편

플라이강원이 양양-제주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은 4일 오는 연말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하루 왕복 3~4회로 증편해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증편은 최근 양양-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85%를 넘는 호조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양양-제주 노선은 지난해 11월 22일 최초 취항 이래 플라이강원이 지속적으로 운항 및 개발해 온 노선이다. 강원도민들의 여행 편의를 위해 코로나 발발 및 재확산 상황에서도 꾸준히 운항을 유지해 온 노선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현재 양양-제주 노선은 매일 1~2회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강원 항공기.

데, 거의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제주 노선 증편을 계획하게 됐고, 운항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강원도민들의 여행 스케줄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플라이강원은 양양에서 출발해 양양으로 도착하는 ‘일출·일몰 비행 상품’을 선보였으며, 이 밖에 다양한 관광 비행 체험 상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